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Paid Workers Aged 20s and 30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교수 차경욱**

석사과정 박미연

석사과정 김연주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 Cha, Kyung-Wook

Masters Course : Park, Mi-Youn

Masters Course : Kim, Yeon-Ju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ctations and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paid workers aged 20s and 30s. It compared paid workers' socio-economic, and retirement-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who had retirement planning and those who did not, and identified factors important to retirement planning decision.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paid workers in age 20s and 30s (n=227), and were analyzed by t-tests, chi-square tests, an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id workers' expected retirement age was 56, and their ideal age for retirement was about 60. More than 85% of workers agreed that the retirement planning should begin before age 40, but just 51% of the workers had retirement planning.

Second, the workers aged 30s, married, and those who had higher incomes and home ownership were more likely to prepare financially for their retirement.

Third, as their expected retirement ag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decision to retirement planning increased. Those who expected that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es' living would be same as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were more likely to have retirement planning.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retirement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ision to have retirement planning.

▲주요어(Key Words) :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 은퇴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임금근로자(paid workers), 은퇴에 대한 기대(expectation for retirement), 은퇴태도(attitude toward retirement)

* 이 논문은 200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차경욱 (E-mail : kwcha@sungshin.ac.kr)

I. 서 론

최근 사회적, 개인적으로 은퇴와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고용불안, 국민연금 제정 고갈, 저금리, 과도한 사교육비,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30여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 두면 거의 15%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자녀들의 보조를 조금 받으면 노후 생활에 별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직과 조기퇴직이 잦고 고용상태가 불안하며, 예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잡을 정도이다. 평균 수명은 거의 80세에 달했고, 부모와 자녀세대는 점점 분리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정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익히 알려져 있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역시 직장과 고용상태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기대 가능한 얘기이다. 게다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은 은퇴재무설계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만 35~49세 남녀 1,001명(은퇴잠재자)과 퇴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잠재자의 59%는 '은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47.8%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61.9%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비'(20.9%) '주택마련 비용'(15.1%)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은퇴시기를 평균 62~63세로 인식하고 있었고, 평균 36~37세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조사대상자의 70%는 은퇴 후 평균 생활비로 월 100~200만원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은퇴를 앞둔 49세 미만의 은퇴 잠재자들은 현재 소득의 57%가량이면 은퇴생활비로 적절하다고 예상한 반면, 퇴직자들은 은퇴 전 소득의 65%는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경향신문 2007년 7월 3일자; 연합뉴스, 2007년 7월 3일자).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재무설계는 생애주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 재무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사건이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등과 같은 여타 과업들 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출현하기 때문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평균 36~37세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할 경우,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통상 20년 남짓이다. 그러나 은퇴 후 살아가야 할 기간은 20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36~37세 부터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은퇴자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각 개인과 가계가 부담을 줄이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설계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경제적 삶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김연정, 1998; 신현구, 2007; 안종범·전승훈, 2003; 이희숙·신상미, 2003), 은퇴를 앞둔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곽인숙 등, 2007; 이지은, 2000; 홍성희·곽인숙, 2006, 2007), 간혹 20대부터 50대까지의 직장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배문조, 2007; 최성재, 1989)도 있었다. 그러나 20~30대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은퇴설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는 20~30대에게는 은퇴재무설계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20~30대 사이에서도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임금근로자들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파악하고, 실제로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관련 특성을 비교하며,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방법 및 규모 등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퇴재무설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조기시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은퇴재무설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바람직한 은퇴설계를 위해 고용주와 공공기관이 운용해야 하는 은퇴재무설계 교육과 각종 제도 마련, 금융기관이 다양한 노후대비 상품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은퇴재무설계의 의의와 현황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는 은퇴라는 사건의 발생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과 정보를 동원해서 그것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실현을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과업이다.

은퇴에 대한 대비 없이 퇴직을 한 사람들은 경제수준의

하락과 가정 내의 지위 하락, 사회활동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은퇴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배계희, 1998). 본질적으로 은퇴설계는 재정적 부분 뿐 아니라, 여가생활, 가족생활, 신체적·심리적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다(최보아·지영숙, 2004; 홍성희 등, 2006). 그러나 소득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며, 노인 스스로도 경제문제를 가장 일차적인 어려움으로 인지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은퇴설계는 주로 재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는 개인과 가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자원을 획득하여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증대시키고 보존함으로써,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정의되며, 은퇴재무설계는 그 재무목표가 노후 삶의 질 향상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퇴재무설계의 필요성은 최근 여러 보고서와 보도자료, 선행연구 등에 의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수명의 연장, 고용불안, 국민연금 재정고갈, 저금리, 과도한 사교육비, 가족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그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과거 세대에 비해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후생활에 대해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대한상공회의소(2006)가 서울 소재 20~50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2005년 실시한 '직장인 노후대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64.6%로 2003년 조사 결과인 32.4% 보다 2배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의 노후준비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저축(37.3%), 개인연금(21.4%), 국민연금(17.1%), 부동산 임대료(14.5%), 퇴직금(5.3%) 등을 답했으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노후대책 수단으로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족하다'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69.5%가 노후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 중 63.3%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19.3%는 아직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아직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답하였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의 54.7%가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준비자금으로 월평균소득의 10% 미만만을 지출하고 있었고, 78.9%는 현재의 노후대비가 은퇴 후 생활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구들의 주된 노후대책 수단은 국민연금(21.9%), 개인연금(20.9%), 부동산(20.1%), 보험(17.1%), 은행예금 및 적금(11.8%)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하나은행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9%는 은퇴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녀교육비 때문에 은퇴준비를 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73.3%는 자녀교육비를 줄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가장 좋은 은퇴준비 방법으로 은행예금과 적금(31.6%), 보험(28.4%), 부동산(21.6%) 등을 답했다(한국일보, 2007년 7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 2007년 7월 3일자; 경향신문, 2007년 7월 3일자).

한편 HSBC가 세계 22개국 성인 남녀 2만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90%가 은퇴 준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 2006년 11월 19일자).

2. 은퇴재무설계 관련 변인 고찰

1)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연령대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에서는 40대, 3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최성재(1989)의 연구에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김성숙과 박운아(1992)는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이고, 노후준비를 위한 월평균 저축액도 많다고 보고했으며, 배문조(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재정준비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40대보다 50대가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을 비교한 홍성희와 객인숙(2006)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 경제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은퇴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임장순(1990)과 김인숙(199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를 대비하여 경제적 계획 및 생활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Barfield와 Morgan (1978)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은퇴 후 계획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은퇴재무설계 수준을 살펴보면, 김성숙과 박운아(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가계가 사무직인 가계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형태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혜택, 직업의 안정성, 근로소득액 수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퇴재무설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하연(1997)의 연구에 의하면, 공적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 종사자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저축액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계소득이 경제적 노후대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대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삼성경제연구소(2007), 배문조와 전귀연(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 신하연(1997)과 홍성희(2007)의 연구에서도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집단이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과 가계의 소득 수준 같은 객관적 조건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가계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은퇴 후 재정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경제력에 대한 평가와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은퇴재무설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이지은, 2000; 홍성희·곽인숙, 2006). 그러나 문숙재와 김순미(1997)에 의하면, 맞벌이 여부가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현재 연령이나 경제상태 뿐 아니라, 예상되는 은퇴연령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 은퇴 후 경제생활에 대한 예측과 기대, 그리고 은퇴에 대한 태도 등은 은퇴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이주일, 2003; 최성재, 1989; 홍성희·곽인숙, 2007).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 연령에 따라 자신의 은퇴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상 은퇴연령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은퇴연령과 희망 정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에서는 희망하는 정년이 65.4세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정년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나은행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기는 평균 62.2세, 은퇴 후 수명을 17.4년으로 예상하고 있었다(한국경제신문, 2007년 7월 3일자). 또한 대한상공회의소(2006)의 조사에서는 적당한 은퇴연령이 남성 62.1세, 여성 56.3세로 남성이 6세가량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희망 은퇴연령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응답자의 73.2%가 55~58세 정년퇴직에 대해 너무 이르다고 답하였다. 이지은(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10년 이상인 경우 보다 은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노후필요자금 정도와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은 은퇴재무설계의 수행과 그 방법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 파악한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대한상공회의소(2006)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9.2%가 노후생활자금으로 은퇴시점 최종소득 대비 70% 이상이 적당하다

고 답했으며, 최종소득 대비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88.1%에 달했다. 삼성경제연구소(2007)는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은퇴 후 생활비를 은퇴 전 5년간 평균 소득의 55.2% 정도로 예상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하나은행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로 현재 소득의 57%가량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비(30.5%), 경조사비(23.8%), 세금과 각종비용(19.2%)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월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문화생활비(27.3%)가 식비(23.5%)나 경조사비(22.7%) 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한국일보, 2007년 7월 3일자).

은퇴에 대한 태도는 은퇴상황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과정으로부터 형성되어 은퇴계획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성희·곽인숙, 2007).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면 그 이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은퇴태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다. Hornstein과 Wapner(1985)는 개인이 은퇴를 경험하는 방식을 노인으로서의 전환, 새로운 출발, 계속, 강요된 좌절의 네 가지 기대양식으로 도출해 냈고, Gee와 Baillie(1999)는 이를 수정하여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계속의 네 가지 차원으로 재정리한 바 있다(배문조, 2007에서 재인용).

Ekerdt 등(1980)은 은퇴에 대한 태도가 중년 초기에는 긍정적이다가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승아와 한경혜(1998), 홍성희와 곽인숙(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에 대한 태도가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중도적인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SBC가 세계 22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48%가 은퇴를 '두려움'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전체 국가 평균(24%)은 물론 아시아 국가 평균(22%)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경제신문, 2006년 11월 19일자).

은퇴태도와 은퇴계획 수준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홍성희와 곽인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태도가 은퇴계획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연령, 경제적 능력, 은퇴 후 생활전망 등이 은퇴태도를 매개로 하여 은퇴계획에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계획의 수준이 높으며, 연령이 높고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은퇴태도를 매개로 하여 은퇴계획에 미치는 간접적인 정적 영향력도 크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곽인숙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 후 소득확보, 생활비 지출, 자산보유와 증식, 부채감소, 상속 및 병원비 등

모든 영역의 경제적 계획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임금근로자들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파악하고,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은퇴관련 특성을 비교하며,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재무설계 방법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30대 임금근로자들의 은퇴재무설계 현황과 행동 특성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은퇴설계를 돕기 위해 정책기관과 고용주, 그리고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라 20~30대 임금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은퇴관련 기대 및 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재무설계 방법과 실태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유의할당 표집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표집되었으나, 기혼인 경우 부부 중 일인만 응답하고 필요에 따라 배우자 정보도 함께 기입하도록 고안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미회수, 부실 기재되거나 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했고, 특히 표집 결과 자영업주의 비율이 5%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난 관계로, 이들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227부의 임금근로자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대상인 20~30대 임금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 은퇴재무설계 방법과 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근무기간, 가구유형(미혼단독가구, 미혼부모동거가구, 기혼가구)과 맞벌이 여부, 월평균가계소득, 주거형태 및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예상하는 은퇴연령,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은퇴설계 시작 시기, 은퇴 후 예상되는 가계 경제수준,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수준, 은퇴 후 예상 수입원과 주요 지출비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은퇴 후 예상되는 가계 경제수준은 1~9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하는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은퇴에 대한 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김영대(2004), 배문조와 전귀연(2004), 지연경과 조병은(1991), 최성재(1989), Staples(1998)의 척도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은퇴태도의 유목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차원이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아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조사한 Cronbach's α 의 값은 .83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현재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질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임금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재무설계 방법과 지출액 규모, 그리고 그 방법 및 금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인 20~30대 임금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의 분포는 남성 51%, 여성 49%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조사대상자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¹⁾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성 별	남 성	116	(51.1)
	여 성	111	(48.9)
연 령	20대	127	(56.4)
	30대	98	(43.6)
	평균(세)	29.85	(4.80)
교육수준	고 졸	9	(4.0)
	대졸(2년제 포함)	184	(82.5)
	대학원졸 이상	30	(13.5)
직 업	생산·판매직	31	(13.7)
	사무직	78	(38.0)
	전문 관리·기술직	99	(48.3)
근무기간 (년)		4.9	(3.7)
가구유형	미혼단독가구	76	(33.5)
	미혼부모동거가구	73	(32.2)
	기혼가구	78	(34.3)
맞벌이 여부 ²⁾	맞벌이	52	(66.7)
	홀벌이	26	(33.3)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65	(28.6)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71	(31.3)
	400만원 초과	54	(23.8)
	평균(만 원)	337.69	(196.7)
주거형태	자 가	58	(44.0)
	비자가	169	(56.0)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1~9점)		4.74	(1.50)

¹⁾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²⁾ 맞벌이 여부는 기혼가구(n=78)에 한하여 조사함.

평균 연령은 29.9세였으며, 20대가 57%, 30대가 4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에 불과하고,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가 82.5%, 대학원졸 이상이 13.5%로서, 본 연구 대상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은 생산·판매직이 13.7%, 사무직이 38%, 전문 관리·기술직이 48.3%로 나타났는데, 생산·판매직에 비해 사무직과 전문 관리·기술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취업 이후 총 근무기간은 평균 4.9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65.7%가 미혼이고 34.3%가 기혼이었는데, 미혼자 중 절반 정도는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가구 중 3분의 2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평균 338만원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조사시점인 2007년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346만 8천원)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07).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의 가계소

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이 합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인지할 때, 조사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은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보다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주거형태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는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재분류한 결과,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26%이고, 전세, 월세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74%로 나타났다.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을 1~9점까지로 기입하도록 한 결과는 평균 4.74점으로 중간 값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20~30대 임금근로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56세 정도로 나

<표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¹⁾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예상 은퇴 연령 (세)	55.96 (8.3)	
	바람직한 정년 (세)	59.64 (6.4)	
바람직한 정년과 예상은퇴연령 차이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113	(49.8)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86	(37.9)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28	(12.3)
	평균	3.68	(7.6)
바람직한 은퇴설계 시작시기	30세 이전	74	(32.6)
	30대	119	(52.4)
	40대 이후	34	(15.0)
현재 은퇴설계 수행여부	한다	114	(50.2)
	하지 않는다.	113	(49.8)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9점)		5.59 (1.60)	
은퇴 후 예상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 차이	은퇴 후 > 현재	113	(50.7)
	은퇴 후 = 현재	50	(22.4)
	은퇴 후 < 현재	60	(26.9)
	평균	0.85	(1.99)
현 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50% 이하	43	(19.1)
	50%초과 75%이하	54	(24.0)
	75%초과 100%이하	89	(39.6)
	100% 초과	39	(17.3)
	평균	89.22	(52.0)
은퇴 후 주요 예상 수입원	개인저축, 개인연금	123	(54.2)
	직장 퇴직금, 퇴직연금	25	(11.0)
	국민연금, 사회보조금	6	(2.6)
	재산소득, 기타소득	73	(32.2)
은퇴 후 주요 예상 지출비목	식비· 주거비	55	(24.7)
	보건· 의료비	106	(46.7)
	문화· 교양· 오락비	63	(27.6)
은퇴태도 ²⁾	긍정적 (38점 이상)	74	(32.9)
	보 통 (33~37점)	82	(36.4)
	부정적 (32점 이하)	69	(30.7)
	평균 ³⁾	3.18	(0.50)

¹⁾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²⁾ 은퇴태도는 [M±SD/2]를 기준으로 긍정적, 보통, 부정적 태도의 세 집단으로 분류함.

³⁾ 5점 환산평균 점수임.

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59.6세로 조사됨으로서, 예상 은퇴연령과는 약 4세가 가까운 편차가 있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2006)의 조사에서 은퇴희망 연령이 20대 56.3세, 30대 58.4세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사하나, 희망하는 정년이 65.4세로 보고된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예상 은퇴연령은 직업군에 따라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로 은퇴 예상 연령이 56~60세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주소현, 2007; 홍성

희, 2007). 본 연구에서 약 50%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은퇴 연령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서, 보다 더 오랜 기간 일을 하기를 원했고, 약 12%는 반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이 예상 은퇴연령 보다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52%는 30대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3%는 30세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조사대상인 20~30대 임금근로자의 85%가 40세가 되기 전에 은퇴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은퇴설계

조기 시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실제로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의 50%는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0%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기대와 예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은퇴 후 예상수입원 및 주요 지출비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을 1~9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5.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경제수준을 평균 4.74점으로 평가한 것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은퇴 후 경제수준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 현재와 같은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 그리고 현재 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조사되었다.

또한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89%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0%가 현재 생활비의 75~100%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17%는 현재 생활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개인과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로 잡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금액이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조사들에서 50~60% 정도로 나타난 것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06; 삼성경제연구소, 2007; 하나은행, 2007). 이는 젊은 층이 은퇴 후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30대 현재 소득과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중년기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54%가 은퇴 후 수입원으로서 개인 저축, 보험과 개인연금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2%는 부동산 등 재산소득과 제 2의 직업을 통한 근로, 사업소득이라고 답하였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은퇴 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비목은 보건·의료비(46.7%)였고, 문화·교양·오락비(27.6%)가 뒤를 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식비, 주거비와 같은 기초생활비 보다는 은퇴 후 건강 유지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은퇴 후 생활에서 의생활, 건강, 여행 및 취미 영역보다는 주거와 식생활 영역에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김성숙·박운아(1992)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15년의 시간 동안 소비생활의 패턴 및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사료된다.

5점 리커트 척도 11문항으로 측정된 은퇴에 대한 태도는 5점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 평균 3.18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집단($M+SD/2$ 초과), 보통 집단($M+SD/2 \sim M-SD/2$), 부정적인 집단($M-SD/2$ 미만)을 분류한 결과, 보통 집단에 속하는 조사대상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3.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20~30대 임금근로자 중에서 50%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실제로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0%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사회·경제적 특성은 연령, 직업, 근무기간, 가구유형,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월평균 가계소득 및 주거형태였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근로자 집단의 평균 연령(31.3세)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연령(28.4세)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20대 보다는 30대의 근로자들이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재정적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대개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업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이므로, 은퇴설계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한 기간이 평균 6.4년인 것에 반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근무기간은 3.37년인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생산·판매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전문 관리·기술직에 종사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구의 직업이 전문 관리직인 가계가 사무직인 가계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한다고 밝힌 김성숙과 박운아(199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은퇴재무설계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결혼여부와 가구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미혼인 근로자들은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모두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기혼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380.6만원

<표 3>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 사회·경제적 특성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t/X ²
		은퇴재무설계 수행 (n=114)	은퇴재무설계 미수행 (n=113)	
성 별	남 자	61 (52.6)	55 (47.4)	.53
	여 자	53 (47.7)	58 (52.3)	
연 령	20대	48 (37.8)	79 (62.2)	18.01***
	30대	65 (66.3)	33 (33.7)	
	평균(세)	31.31 (4.3)	28.38 (4.9)	
교육수준	고 졸	6 (66.7)	3 (33.3)	2.36
	대졸(2년제 포함)	89 (48.4)	95 (51.6)	
	대학원졸 이상	18 (60.0)	12 (40.0)	
직 업	생산·판매직	10 (32.3)	21 (67.7)	16.82***
	사무직	31 (39.7)	47 (60.3)	
	전문 관리·기술직	65 (65.7)	34 (34.3)	
근무기간 (년)		6.41 (3.9)	3.37 (2.7)	-6.65***
가구유형	미혼단독가구	33 (43.4)	43 (56.6)	9.17**
	미혼부모동거가구	31 (42.5)	42 (57.5)	
	기혼가구	50 (64.1)	28 (35.9)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6 (69.2)	16 (30.8)	2.75
	홀벌이	13 (50.0)	13 (50.0)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32 (49.2)	33 (50.8)	4.72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35 (49.3)	36 (50.7)	
	400만원 초과	36 (66.7)	18 (33.3)	
평균(만 원)		370.6 (204.9)	298.8 (180.1)	-2.57*
주거형태	자 가	35 (60.3)	23 (39.7)	4.32*
	비자가	79 (46.7)	90 (53.3)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9점)		5.0 (1.3)	4.49 (1.7)	-2.58*

¹⁾ 맞벌이 여부는 기혼가구(n=78)에 한하여 조사함.

으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298.8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의 경우,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수준에 주관적 인지 역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이나 자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이 은퇴재무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계소득, 자산 등이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이지은, 2000; 배문조·전귀연, 2004; 홍성희, 2007)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비교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의 차이, 은퇴 후 예상 수입원,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수준, 은퇴 후 예상 지출비목, 은퇴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예상 은퇴연령, 바람직한 정년 등 은퇴시기와 관련된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은퇴재무설계 시작 시기의 경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들의 분포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20~30대인 조사대상자의 85%가 늦어도 30대에 은퇴재무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51%만이 실제로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었고, 반대로 40대 이후에 은퇴재무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근로자의 44%는 이미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은퇴재무설계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자체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의 경제수준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 보다 높거나 혹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은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역시 이와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 - 은퇴기대와 태도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t/X ²
		은퇴재무설계 수행 (n=114)	은퇴재무설계 미수행 (n=113)	
예상 은퇴 연령 (세)		55.38 (8.0)	56.55 (8.6)	1.07
바람직한 정년 (세)		59.16 (7.0)	60.13 (5.7)	1.15
바람직한 은퇴 설계 시작 시기	30세 이전	36 (48.6)	38 (51.4)	.93
	30대	63 (52.9)	56 (47.1)	
	40대 이후	15 (44.1)	19 (55.9)	
은퇴 후 예상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9점)		5.78 (1.5)	5.40 (1.7)	-1.80
은퇴 후 예상경제 수준과 현재 경제 수준 차이	은퇴 후 > 현재	53 (46.9)	60 (53.1)	8.58*
	은퇴 후 = 현재	34 (68.0)	16 (32.0)	
	은퇴 후 < 현재	25 (41.7)	35 (58.3)	
	평 균	.78 (1.8)	.91 (2.2)	
현 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50% 이하	20 (46.5)	23 (53.5)	7.97*
	50%초과 75%이하	21 (38.9)	33 (61.1)	
	75%초과 100%이하	54 (60.7)	35 (39.3)	
	100% 초과	17 (43.6)	22 (56.4)	
	평 균	90.67 (55.0)	87.79 (49.1)	
은퇴 후 주요 예상수입원	개인 저축, 연금	55 (44.7)	68 (55.3)	10.62**
	직장 퇴직금, 연금	17 (68.0)	8 (32.0)	
	국민연금, 보조금	6 (100.0)	0 (0.0)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36 (49.3)	37 (50.7)	
은퇴 후 주요 예상 지출비목	식비·주거비	27 (49.1)	28 (50.9)	7.00*
	보건·의료비	61 (57.5)	45 (42.5)	
	문화·교양·오락비	23 (36.5)	40 (63.5)	
은퇴태도 ¹⁾	긍정적 (38점 이상)	49 (66.2)	25 (33.8)	18.39***
	보 통 (33~37점)	42 (51.2)	40 (48.8)	
	부정적 (32점 이하)	21 (30.4)	48 (69.6)	
	평 균 ²⁾	36.79 (5.6)	33.17 (4.9)	

¹⁾ 은퇴태도는 [M±SD/2]를 기준으로 긍정적, 보통, 부정적 태도의 세 집단으로 분류함.

²⁾ 5점 환산평균 점수임.

은퇴 후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75~10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게 반해, 75%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한 근로자들, 그리고 오히려 100%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은퇴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홍성희와 박인숙(2007)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퇴재무설계 과정에서 현재 생활비의 70~80%정도를 은퇴 후 예상생활비로 잡고, 은퇴 후 필요한 총 금액을 모으기 위해 구체적인 재무전략을 수립·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집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무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은 국민연금,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은퇴 후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집단은 국민

연금이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가 낮고, 개인저축과 개인연금이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기대하는 바와 실제 행동 간에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목을 살펴보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에서는 보건·의료비였고, 수행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문화·교양·오락비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건강 문제와 관련된 노후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보건·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은퇴재무설계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11점부터 55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척도에서,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은 평균 36.8점으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33.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은퇴태도를 긍정적, 보통, 부정적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의 은퇴태도가 보다 긍정적이고,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의 은퇴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보여주었다. 이는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은퇴 후 경제적 계획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콕인 숙 등(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4.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30대 임금근로자들의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한 변수들의 영향력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는 로그오즈계수(log odds coefficients), 표준오차(standard error) 및 오즈비(odds ratios)가 제시되어 있다. 로그오즈계수는 오즈비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오즈비는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은퇴재무설계 여부의 오즈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1보다 크면 오즈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오즈를 감소시킨다. 즉 오즈비가 1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즈비로부터 1을 빼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오즈의 변화량 증감분을 퍼센트로 알 수 있다 (DeMaris, 1992; Pampel, 2000).

사회·경제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직업, 주거형태가 은퇴재무설계 수행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임금근로자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무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판매직 보다는 전문·관리·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월평균가계소득은 유의한

<표 5>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회귀분석

(n=227)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coefficient (s.e)		odds ratio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여성)			
	남성	-0.378	(0.455)	0.685
	연령	0.295***	(0.071)	1.344
	교육수준 (대졸이하)			
	대학원졸 이상	0.115	(0.613)	1.122
	직업 (생산·판매직)			
	사무직	0.025	(0.589)	1.025
	전문·관리·기술직	1.139*	(0.565)	3.124
	결혼상태 (미혼)			
	기혼	-0.450	(0.574)	0.638
월평균가계소득	0.001	(0.001)	1.001	
주거형태 (비자가)				
자가	1.506***	(0.471)	4.507	
은퇴 기대와 태도	예상은퇴연령	-0.136***	(0.037)	0.873
	바람직한 정년과 예상은퇴연령 (같음)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1.519**	(0.582)	0.219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0.109	(0.647)	0.896
	은퇴후 예상경제수준과 현재경제수준 (같음)			
	은퇴 후 > 현재	-1.334*	(0.613)	0.263
	은퇴 후 < 현재	-2.036**	(0.689)	0.130
	은퇴후 예상수입원 (재산·기타소득)			
	개인저축, 연금	0.511	(0.451)	1.668
	국민, 퇴직연금, 퇴직금	2.120**	(0.788)	8.329
	은퇴후 예상지출비목 (식비·주거비)			
	보건·의료비	-0.097	(0.555)	0.908
	문화·교양오락비	-0.706	(0.628)	0.494
은퇴태도	0.145***	(0.047)	1.156	
상수	-5.172	(3.141)		
chi-square	92.965***			
-2log likelihood	165.368***			

*p<.05, **p<.01 ***p<.001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예상 은퇴연령,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과 예상 은퇴연령과의 차이,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의 차이, 은퇴 후 예상수입원, 은퇴에 대한 태도 등이 은퇴재무설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하는 은퇴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는 (2000)의 연구에서도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들이 은퇴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까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로자 집단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정년 보다 일찍 은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로자들의 은퇴재무설계 수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임금근로자들은 대체로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은퇴시기를 예상할 수 있지만, 자의에 의해 은퇴연령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정년 보다 일찍 은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보다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경제수준과 현재의 경제수준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은퇴 후 경제수준이 더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과 현재가 더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 모두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앞서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즉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에 비해,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 보다 높거나 혹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이 오히려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은퇴 후 경제수준이 더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의 경우, 은퇴재무설계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고 안정된 경제력이 보장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실상은 은퇴에 대한 현실적 지각이 부족하여 막연한 기대를 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은퇴 후 경제생활이 현재 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은퇴 후 주요 예상수입원에 따른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를 살펴보면, 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예상하는 집단에 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높았다. 사회보장과 기업보장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무설계를 일찍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긍정적인일수

록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이는 은퇴태도가 은퇴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은퇴 후 경제생활에 대한 계획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곽인숙 등, 2007; 홍성희 등, 2007)의 결과를 지지한다.

5. 은퇴재무설계 수행집단의 재무설계 실태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11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금마련 방법 및 지출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인 20~30대 근로자들이 은퇴 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외)을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조사대상자의 80% 가량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조사대상의 65.8%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그리고 60.5%가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종신/정기)이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은 은퇴준비를 위한 자금마련 뿐 아니라, 가계의 장기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추구하면서 자금을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형 상품이나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은 은퇴 후에 정기적인 현금 창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은퇴재무설계에 매우 적합하다. 종신/정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최근 다양한 상해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종합보장형 상품들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및 질병 보장과 겸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인 은퇴재무설계 방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입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방법은 부동산(38.7%) 이었고, 그 뒤를 이어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24.6%), 퇴직금 및 퇴직연금(13.2%)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순위에 관계없이 전체 빈도를 집계한 결과, 효과적인 재무설계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조사대상자의 66.7%가 선택한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61.4%), 퇴직금 및 퇴직연금(36.8%)이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 은퇴재무설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30.7%에 불과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부동산이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대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은퇴 후 목돈 마련을 위해서도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표 6> 은퇴재무설계 수행집단의 재무설계 실태

(n=114)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사용 중인 재무설계방법 (중복응답)	정기예금/정기적금	91 (79.8)
	연금보험/연금저축	75 (65.8)
	생명보험 (종신/정기)	69 (60.5)
	간접투자상품 (펀드)	63 (55.3)
	건강/질병보험	52 (45.6)
	부동산	35 (30.7)
	주식/채권투자	31 (27.2)
효과적인 재무설계방법 ¹⁾ (1~3순위응답)	1순위	부동산 44 (38.6) 연금보험/연금저축 28 (24.6) 퇴직금/퇴직연금 15 (13.2)
	전 체	연금보험/연금저축 76 (66.7) 부동산 70 (61.4) 퇴직금/퇴직연금 42 (36.8)
		50만원 이하 47 (41.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49 (43.0)
	100만원 초과 18 (15.8)	
은퇴재무설계 월평균지출액	평균 (만원) 75.11 (41.93)	
사용 중인 방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부족하다 40 (35.1)	
	보 통 57 (50.0)	
	충분하다 17 (14.9)	
지출액에 대한 주관적 평가	부족하다 58 (50.9)	
	보 통 35 (30.7)	
	충분하다 21 (18.4)	

¹⁾ 효과적인 재무설계 방법은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세 가지 방법만 제시함.

조사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을 통틀어 은퇴재무설계를 위해 불입하고 있는 금액은 월평균 75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으며, 약 41%는 50만 원 이하, 약 42%는 50~1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무설계 방법과 금액이 은퇴 준비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방법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고 답한 조사대상자가 35.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였다. 또한 과반수(50.9%)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은퇴재무설계를 위해 불입하는 금액이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재무설계 방법과 금액 각각에서 '매우 충분하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조사하고,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라 그들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56세로

서,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59.6세) 보다 4세 정도 낮았다. 조사대상인 20~30대 임금근로자 중 85%가 40세가 되기 전에 은퇴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89% 정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은퇴 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비목은 보건·의료비(46.7%)였으며, 문화·교양·오락비(27.6%)가 그 뒤를 이었다. 중년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나 기존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20~30대 근로자들이 은퇴설계 조기시작의 필요성 및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 영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실제로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0%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20~30대 임금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이나 주택마련, 대출상환과 같은 여타의 재정적 제약요인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20대 보다는 30대, 미혼 보다는 기혼, 전문 관리직 종사자, 월평균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를 보유한 근로자, 그리고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높은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직업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비교적 안정되고, 소득

과 자산수준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후에 은퇴재무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은퇴재무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 만큼 큰 효과를 얻게 된다는 점, 현재 처해있는 소득수준이나 경제상황이 여유롭지 않더라도 시작해야 하는 장기 재무목표라는 점을 상기하고, 각 개인의 연령, 생애주기, 직업과 경제 상태에 적합한 은퇴재무계획을 수립,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직장을 중심으로 은퇴재무설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연령대와 소득수준별로 적합한 전문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직장 내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상은퇴연령이 낮을수록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증가했고, 근로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 보다 예상은퇴연령이 낮은 경우에 은퇴재무설계 수행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기대 역시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임금근로자들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퇴시기와 퇴직금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에, 은퇴와 관련된 기대변수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기 퇴직, 잦은 이직,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임금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30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험, 저축상품 및 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소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은퇴재무설계의 본질과 목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일부 금융기관의 상업적 의도에 의해 은퇴재무설계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은퇴 후 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이 같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에 비해,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과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 모두 은퇴재무설계 수행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은퇴 후 경제수준이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미리 은퇴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고 안정된 경제력이 보장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실적 지각이 부족하여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은퇴 후 경제생활이 현재 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응할만한 여력과 방법이 부족하여 은퇴재무설계를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고, 수행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현재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을 구분했을 뿐, 얼마나 오랫동안 은퇴 준비를 해왔으며,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으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 경제수준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 중 일부는 이미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을 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여부만을 질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다섯째,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은퇴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즉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정적 준비 역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은퇴태도와 은퇴설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향후 은퇴재무설계는 지엽적인 재무전략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과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은퇴 준비를 해왔으며,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으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현재 소득에서 은퇴준비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특히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요인이 제약이 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2007). 은퇴 준비 전혀 못해 60%. 2007. 7. 3.
 광인숙·홍성희·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37-52.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8.
- 김영대(2004).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 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1993).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상공회의소(2006).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 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2007).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45-158.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삼성경제연구소(2007). 소비자태도조사. 2007 4/4분기 부가조사 - 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 서울신문(2007). 은퇴 후 걱정 생활비 월 150만~200만원". 2007. 7. 4.
-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안중범·전승훈(2003). 은퇴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 4차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발표 자료집**, 350 -370.
- 연합뉴스(2007). 은퇴, 30대 후반부터 20년간 준비. 2007. 7. 3.
- 이승아·한경혜(1998).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6(5), 125-135.
- 이주일(2003). 기업구성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준비 교육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16(1), 57-79.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3.
- 임장순(199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현(2007). 가계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소득 충분성.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8-15.
-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중앙일보(2007). 직장인 60% '은퇴준비 아직 못했다'. 2007. 7. 16.
- 최보아·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 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1), 47-65.
- 하나금융그룹(2007). 은퇴준비포럼. 한국인의 은퇴준비 현황과의식구조.
- 한국경제신문(2006). 은퇴혁명 ... 한국은 '은퇴 준비' 후진국. 2006. 11. 19.
- 한국경제신문(2007). 직장인 60% 은퇴준비 못하고 있다. 2007. 7. 3.
- 한국일보(2007). 은퇴준비 왜 못하나 봤더니... 자식 때문에. 2007. 7. 3.
-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홍성희·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2), 89-104.
- 홍성희·김순미·김혜연(2006).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95-115.
- Berfield R. & Morgan, J. (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Gerontology*, 11(1), 29-32.
- Ekerdt, D. J., Bosse, R., & Morgey, J. M. (1980). Concurrent change in planned and preferred age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5, 232-240.
- Staples, P. A. (1998).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lifelong career development among adolescents, young adults, and midlife adult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접수일 : 2007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2월 24일